

『예수성교전서_로마』(1887)와 『보라달로마인서』(1890)의 표기 및 음운 현상과 어휘에 관한 연구

유경민(전주대)*

〈목 차〉

- | | |
|--------------------------|-------------|
| 1. 서론 | 4. 어휘 및 높임법 |
| 2. 초기 한국어 성경의 번역 및 수정 과정 | 5. 결론 |
| 3. 표기 및 서북 방언의 특징 | |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성서번역위원회가 조직되기 이전에 간행된 로스 번역본을, 훗날 성서번역위원회와 성서번역자회의 번역 위원으로 활동한 아펜셀러가 수정한 역본과 대조하여 한국어 성경 번역의 초기 두 번역본의 국어학적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개신교 최초의 한국어 번역 성경인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1882년)를 간행해 낸 이후 로스 번역 팀은¹⁾ 『예수성교전서』(1887년)라는 국문 전용 新約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초書까지 간행해냈다. 이후 영국성서공회에서는 1889년 서울의 선교사 모임에 로스 번역본 한국어 성경의 수정본 간행을 요청하였고, 1890년에 누가복음과 로마서의 수정본이 간행되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로마서의 수정 작업을 책임졌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는 로스 번역본의 수정 작업을 곧 포기하고 새로운 번역본을 계획한다. 로스 번역본의 수정 과정에서 그 수정의 의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언어적 이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만주에서 작업된 로스 번역본에는 서북 방언형과 현지인들의 습관적 언어 사용의 면면들이 그대로 표기와 어휘 표현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북 방언에 대한 연구에는 김영배(1983), 이용호(1979), 최명옥(1985/1992/1994), 최임식(1984), 한성우(2003) 등이 있다. 대부분의 논문에서 로스 목사의 간행 물들을 다루고 있을 만큼 로스의 저서들은 서북 방언을 표기와 어휘 표현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로스가 구사하고 있는 언어 형태가 당시 서울 이남 지역의 언어와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지 정밀하게 살펴본 논의는 없다. 아펜셀러가 주도한 로스역본의 수정 작업은 현지의 언중을 대상으로, 성서 보급을 통한 선교를 염두에 두고 소통과 이해에 문제가 되는 언어적 부분들을 수정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아펜셀러 수정본과 대비 작업은 로스 번역본이 갖는 언어적 한계를 확인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동안 로스 번역본의 ‘개신교 최초의 한국어 번역 성경’이라는 의의가 크게 부각되면서 그 이면의, 그것이 한국어 성경의 전통 혹은

[NRF-2012-S1A5B5A02]

- 1) 세칭 **Ross Version**(로스역)으로 불리는 한국어 성경들은 로스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동료이자 매제인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 한국인 이용찬, 서상륜, 백홍준 등과 함께 『新約全書文理』(Delegates' Version 1852)와 『개정 그리스어성경』을 저본으로 번역한 것인데, 한국어 성경 번역의 동기와 주요 작업이 로스에 의하여 마련되고(1879년 4월까지 마태복음에서 로마서까지 번역한 초고를 들고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본부를 찾아가 한글성경 인쇄의 지원을 약속받음)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빌어 ‘로스역’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이덕주 2002:4, 이은선 2007:83)
- 2) 1887년 서울에 있던 5명의 선교사 즉, 언더우드, 아펜셀러, 알렌, 스크랜튼, 헤론이 모여 언더우드를 위원장으로 ‘성서번역위원회(Committee for Translating the Bible into the Korean Language)’를 조직하였다. 미국복장로회 소속의 언더우드와 게일, 미국복감리회 소속의 아펜셀러와 스크랜튼, 성공회 소속의 트롤로프, 미국남장로회 소속의 레이놀즈로 위원회가 조직되었으나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성서 번역은 여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성서공회에서 한국의 위원회에 로스역본 수정작업을 요청하여 아펜셀러 개인이 누가복음과 로마서를 수정하게 된 것이다.

전형이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즉 로스 번역본이 갖는 한계에 대하여서는 간과해 온 것이 사실이다.

로스가 안식년(1879.5-1881.5)을 떠난 후에 매킨타이어는 1880년에 발간된, 서울 이남 지역의 언어가 수록된, 『한불자전』을 구입해 보고, 자신들이 목표로 한 대중이 조선 전체가 아니라 서북 방언을 사용하는 평안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이은선 2007:81). 이를 계기로 로스역 한국어 성경은 서울 이남 언어와 다른 서북 방언을 더욱 차별적으로 표현해내고자 했을 것으로 보인다. 로스의 저서들이 서북 방언형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예수성교전서』(로스 1887)의 ‘로마’ 부분과 그것을 수정한 『보라달로마인서』(아펜셀러 1890)이다. ‘保羅 達 羅馬人 書’의 ‘保羅’는 바울의 한역음으로, ‘바울이 로마인에게 전달할 편지’라는 뜻을 나타낸다. 본고는 ‘신약성경-로마서’의 초기본인 두 번역본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로서, 표기를 통해 알 수 있는 19세기 말의 서북 방언과 서울 이남 지역어의 음운 현상을 대조한다. 더불어 두 번역본의 어절 대비 연구를 통해 현대 국어에서와는 다른 표현 및 어휘 의미를 살펴본다. 현대 한국어 성경과의 대조 고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약전서』(試驗譯本³⁾)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 및 『眞珠 聖經全書 國漢文 改譯改訂版』(2008)의 해당 부분을 참고한다.

2. 초기 한국어 성경의 번역 및 수정 과정

스코틀랜드 장로교 소속의 로스(John Ross, 羅約翰) 목사를 중심에 둔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 馬勤泰), 이응찬(李應贊), 백홍준(白鴻俊), 서상륜(徐相崙), 이성하(李成夏) 등의 로스 번역팀이 만주 지역에서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1882)를 간행해 낸 이후 현재까지, 130여 년 동안 한국어 번역 성경은 수정과 개정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그 간행의 역사를 이어 왔다. 여기에

3) 각 번역자들에게 성서를 분배하고, 외국인 선교사들은 헬라어 및 영어 개역판 성서를, 한국인 조사들은 중국 위원회역본 한문성서를 저본으로 번역하고, 다른 번역자들과 의견을 나누며 수정하여 전체 번역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원고를 확정-정서하여 실행위원회에 보내 완성한 번역을 ‘성서번역자회 시험역본(Tentative Edition of the Board, 1900)’이라고 하였다.

성경의 고정된 원문에 대한 각 시대별 혹은 譯者별 언어 변화 및 변천에 대한 대비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선교를 목적으로 한, 읽고 이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간행한 번역 성경이야말로 당대의 현실 언어를 가장 쉽게 반영해 내고자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로스 번역본의 수정을 책임진 아펜셀러는 한국어 성경 번역의 초창기에서부터 한국어 성경 번역의 전통을 세우고,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아펜셀러는 많은 개인역본을 간행해 냈을 뿐만 아니라, 1893년 영국성서공회의 만주 지부 총무였던 켈뮤어의 내한을 계기로 조직된 常任聖書實行委員會 산하의 聖書翻譯者會(The Permanent Executive Bible Committee - Board of Official Translators)에서 공인역본들을 간행해 낼 때에도 왕성한 번역 활동을 한 선교사이다(류대영 외 1994:34-46). 한국어 번역 성경의 역사 위에서 아펜셀러가 주도한 수정역본을 그 저본과 함께 살펴보는 것은 19세기 말 개별 번역 성경에서 4) 공인역 성경으로 이어지는 한국어 성경 번역의 변화 과정을 밝혀 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4편의 복음서와 21편의 서신과 1편의 계시록으로 구성된 신약성서 중 로마서는 바울(Paul)이 로마 교회를 위해 쓴 서신이다. 바울은 유대인 가정에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난 율법학자였는데, 그가 쓴 서신들은 많은 비유와 함축적인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해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펜셀러가 로스의 『예수성경전서』 중 ‘누가복음’에 이어 난해한 ‘로마서’를 선별하여 수정한 것은 그 내용이 갖는 의미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로마서에는 한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로마인이나 헬라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신앙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관계와 그들의 화합 및 구원에 대한 교훈이 설명되어 있다. 아펜셀러가 조선이라는 선교지에 와서 신분의 차별, 문명과 비문명의 문제 등을 보며 느낀 조선의 상황이 바울이 바라본 로마의 상황과 유사해 보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신약전서 중에서 로마서를 우선적으로 수정한 것은 당시 그리스도 및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조선을 바라는 아펜셀러의 의지의 표명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류대영 외(1994:203)는 번역은 첨가와 삭제 및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形式

4) 이 시기 간행된 개인역본에는 『수도회전』(1892, 개일), 『요한복음전』(1892, 권익), 『약한의 기록한 디로 복음』(1893, 권익)도 있다.

一致翻譯, 혹은 直譯과 內容同等性翻譯, 혹은 意譯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짧게 줄이거나 길게 늘인 풀이역을 거부하고 축자역을 고집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민영진(1998:139)은 로스역은 형식에 맞춘 축자역이 아니라 ‘의미 전달 중심의 번역’의 경향성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과연 로스 번역본 한국어 성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다른 한국어 번역 성경들과 함께 살펴볼 때에 비로소 정밀하게 분석되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본고의 대비 연구의 의의가 있다.

성경 이본들을 대조해보면, 장 구분에서는 번역본별로 차이가 없으나 하나의 장 내에서 절 구분이 다르게 표시된 된 부분들은 적지 않다. 이는 서정욱(1986:16)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번역 당시 참조된 것으로 보고된 한문성서, 헬라어성서, 영어흡정역성서, 영어개역성서 등으로부터 만연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 한국어 의미 분절점이 외국어의 그것과 다르고 번역자마다 문장의 분절점이 조금씩 달랐을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로마’에 대한 로스 번역본과 아펜셀러 수정본을 대조해 보면, 절의 분절점이 다르게 된 부분이 27곳이 있다. 절 구분의 위치가 다른 부분을 제시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장 구분 | 마지막 절 | 대조적 절 구분 | 첨가 및 삭제 어휘 |
|------|-------|-----------------------------|--------------------------------------|
| 제1장 | 32 | 1절, 3절~19절 ⁵⁾ | 1890년본 18절 '그' 첨가 ⁶⁾ |
| 제2장 | 29 | 10절~11절, 21절~22절 | |
| 제3장 | 31 | | |
| 제4장 | 25 | | |
| 제5장 | 21 | | |
| 제6장 | 23 | 17절~19절 | |
| 제7장 | 25 | | |
| 제8장 | 39 | | |
| 제9장 | 33 | 9절~10절 | |
| 제10장 | 21 | | 1887년본 17절 '이갓치' 첨가 ⁷⁾ |
| 제11장 | 36 | | |
| 제12장 | 21 | | |

| | | | |
|------|----|--------------------|--|
| 제13장 | 14 | 9절~10절, 13절~14절 | |
| 제14장 | 23 | 11절~12절 | |
| 제15장 | 33 | 5절~6절 10절~13절 | |
| 제16장 | 27 | | |

두 번역본의 장·절을 대조해 보았을 때 특별히 번역 문장 구조가 바뀌거나 삭제된 부분이 없고, 특별한 내용의 첨가도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절 구분의 차이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예수성교전서』(1887)는 띄어쓰기가 되어있지 않고, 서북(西北) 방언의 현실음 중심으로 표기되어 있다. 현대어와 같은 어형이더라도 그 의미 및 쓰임이 다르거나, 아직 2음절어화, 즉 어휘의 근대화 혹은 현대화가 되지 않은 1음

- 5) 아펜셀러 수정본은 절마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큰 문장이 끝날 때마다 ‘O’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 구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로스본은 절이나 문장의 구분을 구분하는 표시가 없어 그 분절 위치를 정확히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아래 왼쪽에 제시된 것이 로스본인데, 아펜셀러본과 대조했을 때 한 어절씩 앞 절에 올려져 행 우측에 한자 숫자 로 표시되어 있다.

| | |
|---|--|
| 수 키 리 스 토 라 우 리 기 터 로 말 부 암 아 | 예 수 그 리 스 도 라 우 리 가 더 로 말 리 |
|---|--|

- 6) 그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은데 ‘그’자가 한 번 더 쓰여진 오기인 듯하다.
 A: 하나님의 노가 하늘노조차 글어무로써 진니를 막는 정성치 은코 불의혼 사람의게 나타
 나게 하시문 능히 <로스 01:18>
 B: 또 하나님의 노가 하늘노조차 그그롬으로써 진리를 막는 정성치 안코 불의혼 사람의게
 나타내게 하시은 <아펜01:18>
- 7) 로스본의 문두에만 ‘이갓치’가 표현되어 있다.
 A: 이 갓치 밋으미 들으무로 말무고 들으미 키리쓰토의 도로 말무느니 <로스 10:17>
 B: 밋음이 드롬으로 말무고 드롬이 그리스도의 도로 말무느니 <아펜 10:17>

절어로 표현되었거나 하는 등 어휘의 실제적 사용 국면이 현대 국어와 다른 예들이 적지 않다. 한국어 성경 번역 초기의 로스 번역팀의 번역은 후속되는 번역본들에 기초 본문 및 문장 구조를 제공했을 것임이 분명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예수성교전서_로마』와 『보라달로마인서』를 정밀하게 살펴본다. 대비 연구의 과정에서, 당시 로스 번역팀의 조선어 번역 작업에 큰 도움을 준 것이 영어개역성경(RV 1881)이라고 밝혀져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덕주, 2002:6), 어휘의 의미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약전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貫珠 聖經全書 國漢文 改譯改訂版』 등과 함께 영어개역성경을 참조한다.

3. 표기 및 서북 방언의 특징

스코틀랜드 장로교 소속의 중국 동북 지방의 선교사였던 로스 목사가 조선어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 그 표기의 기준 및 원칙은 무엇이었을까를 이해하기 위해 로스의 한국어 번역 성경 간행 이전의 저작물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로스는 1876년 선교사들을 위한 중국어 교본 *Mandarin Primer*를, 1877년 한국어 회화서 *Corean Primer*를 *Mandarin Primer*의 체제를 본떠 저술해냈다. 문법서가 아니고, 대화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시 그 지역의 현실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한 책이다. 이를 통하여 당시의 한국어 표기법이 일원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하였으나, 로스는 일관성 있게 당시 그가 머무르던 지역에서 접할 수 있었던 현실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여 나타내고자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rean Primer*를 국어학적으로 살펴본 논의에는 김영배(1983), 이용호(1979), 최명옥(1985/1992/1994), 최임식(1984), 한성우(2003) 등이 있다. 이들 역시 로스의 ‘현실 발음의 표기화’를 전제로 대부분은 로스가 집필 작업을 하였던 당시 그 지역 언어에 초점을 맞추어 서북 방언의 음운 현상을 연구한 것이다. 본장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설명된 서북 방언 및 로스가 집필한 문헌들의 음운적 특징들 중 『예수성교전서-로마』에 반영되어 있는, 두드러진 음운 현상과 표기법을 설명하고 이를 아펜셀러 수정본과 대비한다.

3.1. 현실 발음의 표기

체언이나 용언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형태음소적 원리에 따라 분철로 표기할 수도 있고, 음소적 원리에 따라 연철로 표기할 수도 있다. 이 표기법 혼용의 문제가 로스본과 아펜셀러 본 한국어 번역 성경에서 매우 혼란을 보이는데, 이는 근대 혹은 개화기 국어가 갖는, 중세 국어의 연철 중심 표기에서 현대 국어의 분철 표기로 넘어오는 과도기적 특징이기도 하다. 한글 창제 당시 세종이 간행에 직접 관여한 훈민정음 본문이나 월인천강지곡은 특별히 형태음소적 원리에 따라 표기되었다. 그러나 중세 국어 문헌에서 볼 수 있는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표기의 원칙은 연철이었다. 중세 국어의 연철 중심 표기가 점차 분철 쪽으로 변해 오는 경향은 어렵지 않게 확인되며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이다.

1887년 간행된 로스 번역본과 1890년 간행된 아펜셀러 수정본은 시기적 차이는 거의 없으나 로스 번역본은 방언의 현실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여 나타난 경향이 짙다. 번역 작업에 참여했던 몇몇 조선인들의 언어(서북 방언)가 로스 번역팀이 접할 수 있는 조선어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들의 현실 언어가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반면 아펜셀러 수정본은 7중성법까지 고려하며 분철 표기를 하고자 한 의지의 흔적들이 확인된다. 아직 한국어의 표기법이 표준화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한국어의 현실 발음과 표기가 달라야 하는 이유를 인식하고, 표기법의 정비를 지향하고 있는 듯 여겨진다. 또 조선에 들어와 선교 사업을 시작하며 접한 조선인들의 말과 로스 번역본의 서북 방언 형태에서 느껴지는 이질감이 커 로스 번역본을 들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번역된 지역의 차이로 인한 이러한 언어의 차이는 외국(만주)에서 몇몇 조선인과 외국인 선교사들이 번역한 한국어 성경과 국내에서 정식으로 조직된 번역팀이 한국어를 접하며 번역해낸 한국어 성경이 갖는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반주에서 번역된 로스 번역본의 표기와 표기법의 부재 속에서 나름의 표준화를 지향해 나갔던 것으로 보이는 아펜셀러 수정본의 표기의 예들을 구체적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제시되는 자료 목록은 앞의 것이 로스 번역본의 예이고, 뒤의 것이 아펜셀러 수정본의 예이다.

- (1) ㄱ. 노품/놉흙, 능흐물/능흙을, 미드미라/밋음이라, 발키/븍이, 발게/븍게, 썩크물/썩음을, 삼도/삼도, 어든/엇은, 은혜흐시미라/은혜흐심이라, 죽으무로/죽음으로, 차라리/츨흐리

ㄴ. 그 죽음은 일시 죄를 위하야 죽음이오 그 삶은 하느님을 위하야 살미니
<아펜06:10>

(예1ㄴ)과 같이 『예수성교전서』와 『보라달로마인서』를 살펴보면, 한 문헌의 성격을 전적으로 연철이나 분철로 규정하기 어려울 만큼 두 한국어 성경의 표기법은 당시 다른 문헌들에서와 같이 혼용되어 있다. 그러나 로스역본에서 ‘미드미라, 어든’과 같이 표기한 것을 아펜셀러본에서 ‘밋음이라, 엇은’과 같이 표기하고 있는 것이 두 문헌이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기상의 차이이다. 로스본은 **Corean Primer**가 그렇듯이 발음 위주로 표기한 것이 대부분이고, 아펜셀러본은 형태를 밝혀 표기하고자 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는 단순한 분철 표기만이 아니라 재음소화 표기로까지 이어진다.

연철에서 분철로의 변천선상에서, 형태소의 외형도 고정시키고 어간말 자음이 어미 모음과 함께 한 음절을 이룬다는 음운론적 사실도 보여주는 ‘뱌비, 먹거’ 등과 같은 중철 표기는 두 문헌 모두에서 확인된다. 이와 더불어 ‘ㅍ, ㅌ, ㅋ’ 등의 격음이 어간말 자음일 경우, ‘놉핍, 갓탄지라, 압페’ 등과 같이 음절말 자음이 내파화 경향에 의하여 실현되는 현상을 표기로 나타내고자 한 예들도 확인된다. 이는 어간말 자음을 온전하게 중복하여 표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분 중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놉핍’, ‘압페’와 같은 중철 표기와는 달리 ‘놉핍, 압희’와 같이 ‘ㅍ’을 ‘ㅂ’과 ‘ㅎ’으로, ‘ㅌ’을 ‘ㄷ/ㅅ’과 ‘ㅎ’으로 표기하는 재음소화 표기도 확인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재음소화 표기가 분철 지향의 의지가 엿보이는 아펜셀러본에서만 확인된다는 것이다.

- (2) ㄱ. 니가 이를 행흐는 자를 시비하야 이 갓타물 행흐는 자야 스사로 능히 하나님의 국문을 면흐물 험흐느냐 <로스02:03>

ㄴ. 네가 이를 행흐는 자를 시비하야 이 ㅎ흙을 행흐는 자라야 스스로 능히 하나님의 국문을 면흙을 험흐느냐 <아펜02:03>

ㄷ. 무리 늘 선을 하야 영화와 놉핍과 썩으미 업스물 구흐는 자는 영심으로 써 주시고 <로스02:07>

- ㄹ. 무리 늘 선을 해야 영화와 놉힘과 썩음이 업습을 구하는 자는 영성으로
써 주시고 <아펜02:07>
- ㄱ. 너희가 있는 믿음물 하나님의 압폐서 자기를 위하여 직키고 쥬이 네기은
바가 자기 죄를 덩치 은으면 복이라 <로스14:22>
- ㄴ. 너희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압희서 즈기를 위하여 직희고 도히 녀기는
바가 즈기 죄를 덩치 안으면 복이라 <아펜14:22>

(2ㄱ), (2ㄷ), (2ㄱ)의 예에서와 같이 연철과 분철의 과도기적 표기 현상으로 로스본에서는 중철 표기가 확인되고, (2ㄴ), (2ㄷ), (2ㄷ)에서와 같이 아펜셀러본에서는 재음소화 표기가 확인된다.

반면 분철이나 재음소화 표기에서 더 나아가 분철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형태소 내부 요소들을 분철하여 나타낸 것처럼 표기하는, 이른바 과도분철의 예가 로스 번역본에서 더 많이 확인되는 것이 흥미로운 사실이다.

(3) 클어나/그러나, 클어면/그러면, 클어무로써/그됨으로써, 클언즉/그런즉, 글음/그름(그르-), 길이고/기리고, 길입/기림, 달은/다른, 달은 것/다른 것, 다살이지/다스리지, 덜어/더러, 덜일/드림, 멀어/머리, 물이/무리, 밀연흔/미련흔, 밀이/미리, 불으물/부름을, 안이 하니/아니 하니, 안으문/아님은, 알음답다/아름답다, 은으무로써/아님으로써, 알에/아래, 얼엽고/어렵고, 얼인/어린, 한나토/하나토, 혈이/허리, 흘이워/호리어

로스의 다른 저서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로스는 현실 발음을 표기화하려 하였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3)의 예들은 표기법에 대한 인식이라기보다는 현실 발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1)~(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세기 말에 만주와 서울에서 간행된 두 성경은 일원화된 표기법으로 한 문헌에 특정 표기법을 일괄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수성교전서』는 서북 방언의 현실음을 표기에 반영하고자 한 가운데 연철과 중철, 과도 분철의 표기가 확인되고, 『보라달로마인서』는 서울 이남 지역의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면서도 점차 분철로 표기법이 표준화되는 국어사적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분철과 중철 및 재음소화 표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비슷한 시기의 문헌임

에도 불구하고 수정본인 『보라달로마인서』에서 점차 한국어에 대한 형태음소적 인식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철과 중철에서 분철과 재음소화 표기로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것이 현대 국어의 형태음소적 표기법까지 오는, 표기법의 역사적 변천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기와 관련하여 語中에 ‘ㄴ’이 올 때 ‘ㄹ’로 표기하거나 본래 ‘ㄹ’인 것을 ‘ㄴ’으로 표기하는 예들도 확인된다.

(4) 긴늑/길릭, 불늑/불리-본릭, 진니/진리, 환란/환난

당시의 표기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음절을 같은 글자로 적는 의미 단위 표기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서 번역과 보급의 목적이 선교에 있고, 선교를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읽혀야 하고, 낭독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표기법의 표준화보다는 현실 발음이 우선적으로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1장에서 지적하였듯이 로스 번역팀의 일원이었던 매킨타이어는 서울 이남 지역의 언어가 수록된 『한불자전』(1880)을 보며 자신들이 선교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이 『한불자전』이 발행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지역어의 현실 발음이 더욱 분명히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3.2. 로스 번역본에 나타난 서북 방언의 음운 현상

기존의 음운론에 관련된 논저에서 서북 방언의 특징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음운 현상은 양순음화, 연구개음화, 경음화, 평폐쇄음화, 어두 ‘ㄹ’의 불가, 원순모음화, 움라우트, 전설고모음화, ‘ㅎ’의 탈락, 활음 탈락, 유음화 등이다. 이 대부분의 현상을 로스 번역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서울 이남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아펜셀러의 수정본과 대조해 보았을 때 로스 번역본에서 확인되는, 두드러진 음운 현상은 다음과 같다. 제시되는 예는 ‘로스 번역본> 아펜셀러 수정본’의 순서로 제시한다.

- (5) ㄱ. 음라우트 : 네기->넉이-, 만너->맛나-, 맥이->먹이-, 바림>브람, 익기
->앗기-, 께->퍼-,
 ㄴ. 원순모음화 : 거시문>거심은, 날물>날물, 더부러>더브러, 말리->말무,
 살문>살은, 슬픈지라>슬픈지라,
 ㄷ. ‘ㅎ’의 탈락 : 길에>길혜, 안으로>안호로, 터에>터희

(5ㄱ)의 음라우트는 일종의 동화 현상으로, 뒤에 오는 전설모음 ‘i, y’의 영향으로 앞의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이 되는 현상이다. 동화주인 i, y와 피동화주가 되는 후설모음 사이에 어떤 자음이 개재되어 있으므로 遠隔 동화이다. 이 때 이 개재 자음이 양순음이나 연구개음([-coronal])일 때에는 음라우트가 잘 일어나지만 개재 자음이 치조음이나 경구개음([+coronal])일 때에는 음라우트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coronal] 자질을 갖는 자음이 모음 i, y의 同化力을 차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 음라우트 즉 ‘ㅏ’[a]가 전설모음 [ɛ]가 되고, ‘ㅑ’[a]가 전설모음 [e]가 되려면 [ɛ], [e]라는 모음이 국어 모음 체계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음라우트가 일어나려면 피동화주의 변화를 위한 전설모음이 모음 체계 내에 이미 존재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이보다 먼저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존 논의들에서 지적되고 있듯 당시 ‘ㄱ, ㆁ’가 이미 단모음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ㄴ)의 예 중 ‘말무암-’은 ‘~로, ~를’과 함께 쓰이며 ‘말무암아/말미암아, ‘말무여/말미여’, ‘말무느니/말미느니’, ‘말문/말림아_말미암은’, ‘말무지 안코/말미암지 안코’, ‘말무미라/말미암음이라’ 등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동사이다. 서북 방언에서는 ‘말미->말피->말뫼->말무-’의 과정으로 변천된 것으로 보인다. ‘말미->말피’와 같이 ‘ㅑ’가 2음절 이하에서는 ‘ㅑ’와의 대립을 상실하여 서로 혼동된 표기가 많이 나타난다. 특히 ‘모든/모든, 도죽ㅎ-/도죽ㅎ-, -마른/-마른, 너나른/너나른, 선비/선비’ 등과 같이 주위에 원순모음이나 w, 양순음이 있을 때는 대부분 ‘ㅑ’로 변한다. (5ㄴ)의 또 다른 예인 ‘닐-+-ㅁ+-을(일어남을)’, ‘살-+-ㅁ+-을(살을)’도 로스본에서는 ‘닐물’, ‘살물’로, ‘슬프-’도 ‘슬푸-’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모두 원순모음화가 표기에 반영된 예들이다. ‘말무-’와 마찬가지로 양순 자음 뒤에서는 (특히 후설고

모음의 경우) 평순 모음보다 발음이 쉬운 원순 모음으로 바뀐 음운 현상이고, 이것이 서북 방언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음운 현상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중부 지역에서는 원순모음화가 되지 않고, ‘말미->말피->말미-’의 과정으로 변천되어 현대의 ‘말미-/말미암-’의 형태로 굳어졌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 따위가 원인이나 이유가 되다’라고 풀이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전과 영어 개역본을 확인해 보았을 때, ‘~로부터, 원인/출발점(from)’ 이나 ‘~에 의하여, 수단/계기(by)’ 정도의 의미를 번역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5ㄷ)과 같이 로스본에서는 ㅎ중성 체언에 모음 조사가 결합할 때 ‘ㅎ’이 탈락되어 나타난다. ‘더의>더희, 도리어>도로혀, 만은>만흔, 올은>올흔, 저어ㅎ지>저허ㅎ지, 차라리>출하리’ 등의 예가 더 확인된다.

4. 어휘 및 높임법

본장에서는 로스 번역본과 아펜셀러 수정본을 대비하여 두 번역본에서 다르게 표현된 어휘 및 현대 국어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를 살펴본다. ‘어맘’이나 ‘아밤’과 같은 방언형 어휘나 ‘몸데자/몸데즈(使徒)’와 같이 한자어의 고유어화로 인한 표현이면서 두 문헌에서 동일한 형태로 쓰인 어휘는 일일이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더불어 두 성경의 가장 큰 차이로 볼 수 있는 높임법 표현 양상을 살펴본다.

4.1. 번역의 오류

선교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예수성교전서_로마』(1887)는 서울 이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관점에서 서북 방언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보라달로마인서』(1890)는 이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수정된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로스역본에는 방언형 언어 표현 외에도 수정되어야 할 언어적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덕주(2002:6)에 의하면, 조선에서 행정관서의 서기로 일하다 헤교당한 한

사람(A)이 최신 중국어 문리 성경을 가지고 번역하고, 로스는 그 조선인의 번역을 그리스어 성경과 영어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자자구구 대조하는 방법으로 한국어 성경 번역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또, 1차 번역된 성경을 그리스어나 영어 개역 성경과 대조하는 과정을 돕는, 중국어(한문)를 잘 아는 조선인 학자가 한 사람 더 있다(B)는 설명도 있다. 그(B)는 로스 번역팀과 수년 전부터 일을 해오고 있고, 로스는 아직 조선어의 수칭, 존칭, 도치법 등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로스 번역팀이 한국어의 어려운 부분으로 인식한 ‘수칭, 존칭, 도치법’ 등의 문제는 중국어(한문)와 조선어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오는 문제로 볼 수 있다. A의 번역물을 B와 함께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처음 번역된 A의 원고는 마마를 앓는 사람 얼굴처럼 되었다고 표현되어 있다(이덕주 2002:6). 로스가 주도하였던 그 수정 과정에 실제 도움이 된 것은 그리스어 성경보다는 영어 개역 성경과 메이어(Meyer)의 주석이었다는 것도 밝혀져 있다(이덕주 2002:6). 이러한 번역 과정의 설명을 되짚어보면, 중국어, 그리스어, 영어, 조선어를 모두 잘 아는 사람이 없었던 상황의 번역이었기 때문에 번역에 오류가 없을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예를 보면 중국어(한문)와 조선어의 차이에서 있을 수 있었던 1차 번역 원고의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다⁸⁾.

- (6) ㄱ. 너가 너희 보기를 사모하고 너희를 굿게 하는 령의 척로써 주리니 <로스 01:11>
 ㄴ. 내가 너희 보기를 스모하고 너희를 굿게 하는 령의 은혜로써 주리니 <아펜01:11>

(6)에서 ‘령의 척로써 주리니’와 ‘령의 은혜로써 주리니’가 정확히 대응되어 있고, ‘척’과 ‘은혜’가 분명히 대치되어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척’

8) 실제 번역본을 대조해보면 1장 11절은 질 구분이 다음과 같이 다르게 되어 있으나 연구 방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대조 부분을 편집하여 제시하였다.
 ㄱ. 너가 너희 보기를 사모하고 너희를 굿게 하는 령의 척로써 주리니 이는 너가 <로스01:11>
 ㄴ. 너희게 나아가게 함을 감하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스모하고 너희를 굿게 하는 령의 은혜로써 주리니 <아펜01:11>

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로스 번역팀이 번역 당시 활용하였다는 중국어 성경과 영어 개역 성경을 살펴보았다.

- (7) ㄱ. For I long to see you, that I may impart to you some spiritual gift to strengthen you <REV(Revised English Version) 1:11>
 ㄴ. 因為我切切的想見你們，要把些屬靈的恩賜分給你們，使你們可以堅固。<Chinese Union 繁體 1:11>
 ㄷ. 因為我很想見你們，好把一些屬靈的恩賜分給你們，使你們可以堅定 <Chinese NCV 繁體 1:11>

본고의 연구 대상인 두 한국어 번역 성경의 ‘령의 척로써 주리니’와 ‘령의 은혜로써 주리니’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some spiritual gift’이고, 중국어 (한문) 표현은 ‘靈的恩賜’이다. 아펜셀러본의 ‘령의 은혜로써 주리니’는 한문 성경의 직역으로 볼 수 있다. 한문 성경과 영문 성경 및 아펜셀러본을 고려해 보면, 로스본의 ‘척’은 ‘은혜’에 해당하는 어떤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척’은 한자어일 수도 있고, 고유어일 수도 있다. 이것이 고유어일 가능성은, 로스본 로마서에서 말씀이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오로써’가 아닌 ‘로써’가 결합된 예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성교전서_로마』에서 ‘로써’가 결합된 예는 총 41종, 58회가 출현하는데 ‘척로써’와 같이 자음 뒤에 ‘로써’가 결합된 예는 없다. ‘척오로써’로 쓰이지 않고, ‘척로써’로 쓰인 이유가 ‘척’으로 쓰였지만 모음으로 끝나는 다른 음으로 읽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시기 다른 문헌들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자로 적고 고유어로 읽는, 이른바 후리가나 식 예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8)

운 더 좁은 길 저러꾸부러 이려꾸부러
 何如 亨 夾路이 彼曲지고 此曲저서
 가다보면마린길 풀린길
 行看則窮路. 오가셔 보면 또 通路이라.

그러나 필자는 ‘은혜’나 ‘spiritual’에 해당하는 뜻을 가진, ‘척’과 유사한 음의 한자를 아는 바가 없다. 또, 당대의 다른 문헌들에서는 (8)과 같은 방식의 표기가 적지 않게 확인되지만 로스본 성경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척’이 모음으로 끝나는 고유어로 읽혔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렇다면 ‘-으로써’가 쓰여야 할 자리에 ‘-로써’가 잘못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靈的恩賜’를 ‘령의 은혜로써 주리니’ 외에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영적 은혜를 주리니’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로스본의 ‘령의 척로써 주리니’와 어떻게 관련지어 볼 수 있을 것인가. ‘~의 ~로써 주리니’라는 구문을 고정해 두고 번역 내용을 맞추어 보면, ‘靈的’을 ‘령의 척로써’로, ‘的’을 ‘척’으로 읽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로스 번역팀의 1차 번역을 맡았던 조선인 학자가 한문 성경의 ‘靈的恩賜’를 ‘령(靈)의 척(的)로써 주리니(恩賜)’로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펜셀러는 이 ‘靈的恩賜’를 ‘령의 척로써 주리니’가 아닌 ‘령의 은혜로써 주리니’로 수정하였던 것이다. 한문 성경을 저본으로 한국어 성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일이다.

4.2. 의미 변천 어휘

현대국어에서 ‘동생’은 대부분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사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손아랫사람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함께 낳’이라고 풀이된 ‘동생(同生)’이 사전 표제어로 올라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쓰이지 않는 명사이다. 그러나 개화기 혹은 근대 국어 시기까지만 해도 ‘동생’은 ‘형제’와 같은 뜻으로, 형제보다 더 많이 쓰였다.

- (9) ㄱ. 동싱들아 너 마암의 깃거함과 하나님에게 빌미 더으로 구완케 호문
 <로스10:01>
 ㄴ. 동싱들아 내 므움에 깃거함과 하늘의게 빌미 더희로 구완케 호문 <아펜10:01>
 ㄷ. 만약 너희가 먹는 바로써 동싱으로 근심케 호 즉 이는 사람을 형치 은오
 미니 너희 먹는 거스로써 키리쓰토 죽음을 위호는 자를 망케 호지 말고
 <로스14:15>

- ㄹ. 만약 너희가 먹는 바로써 동심으로 근심케 한 즉 이는 사랑을 행치 아님
이니 너희 먹는 거스로써 그리스도 죽음을 위하는 자를 망케 하지 말고
<아펜14:15>
- ㅁ. 혹 고기를 먹음과 술을 마심과 동심으로 하여곰 넘어지게 은오미 조을지
니 <로스14:21>
- ㅂ. 혹 고기를 먹음과 술을 마심과 동심으로 하여곰 넘어지게 아님이 뉘홀지
니 <아펜14:21>
- ㅅ. 동심더라 너가 너희 어딜미 차고 알미 너넉하여 능히 서로 권홀 줄을
아나 <로스15:14>
- ㅇ. 동심들아 내가 너희 어질미 츠고 알미 너넉하야 능히 서로 권홀 줄을
아나 <아펜15:14>
- ㅈ. 동심덜아 너 주 예수 키리쓰도와 령의 이이로써 너희를 가유호노니 날노
더부러 힘써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로스15:30>
- ㅊ. 동심들아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령의 의인이로써 너희를 기유호노니
날노 더부러 힘써 나를 위하야 하느님의 비려 <아펜15:30>
- ㅋ. 형제의 사랑을 서로 우익하고 존귀를 서로 높피고 <로스12:10>
- ㅌ. 형제의 사랑을 서로 우익하고 존귀를 서로 높히고 <아펜12:10>

로스본의 로마서에서 ‘동심’이 4회 출현하고, ‘형제’가 1회 출현하였는데 아펜셀러본에서도 ‘동심’과 ‘형제’를 통일하여 수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고 있다. 이것은 이 시기에 두 단어가 자유롭게 대치 가능한 동의어로 쓰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헬라어 원전이나 영어 개역 성경에서도 같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 한국어 성경이 ‘형제’와 ‘동심’을 구분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동생’과 ‘형제’는 16세기 이후부터 이 시기까지도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사람, 혹은 그것처럼 매우 가까운 사람을 이르는 말’의 의미로 동의의 경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9)에서와 같이 ‘하느님을 믿는 신자끼리 서로를 이르는 말’의 의미로 ‘형제’보다 더 많이 쓰이던 ‘동생’은 점차 그 의미를 ‘형제’에 넘겨주어 현대 국어에서는 ‘형제’만이 이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덕주(2002:6)에 의하면 로스는 조선어의 수칭, 존칭, 도치법 등의 문제를 어려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외에도 한국어와 영어의 대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지시어 표현이다.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든, 사물을 나타내는 것이든, 인칭에 관한 것이든 한국어의 화시 체계는 <표1>과 같이 ‘이, 그, 저’를 중심으로 평행한 3차원 체계를 이루고 있다(유경민 2009:186-190).

<표1. 한국어의 화시 체계>

| 위치 화시 | 사물 화시 | 시간 화시 | 인칭 화시 |
|------------|-------|-------|------------|
| 여기(話者近稱) | 이것 | 이때 | 이이 (1인칭) |
| 저기(聽者近稱) | 그것 | 그때 | 그대 (2인칭) |
| 저기(話者聽者遠稱) | 저것 | 절때 | 그/그녀 (3인칭) |

이전 시기와는 달리 현대 한국어에서는 3인칭으로 ‘그, 그녀’가 쓰이고 있다. ‘그’의 원형적 지시 기능은 청자 근칭이므로 ‘그’는 2인칭으로 쓰여야 자연스럽고, 3인칭 지시어로는 화·청자 원칭(話·聽者 遠稱)의 ‘저/저녀’가 더 적합한 형태일 것인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2인칭과 3인칭의 공통적 지시어로 ‘그’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말 한국어 번역 성경에서는 3인칭 지시어로 쓰인 ‘더’를 확인할 수 있다.

- (10) ㄱ. 더는 하나님의 집사니 너희 유익히되 만약 악을 행한즉 접퍼홀 거시문
 더가 칼을 잡우미 공연히미 안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어 노를 위하야
 행악하는 자를 티미라 <로스13:04>
- ㄴ. 더는 하나님의 집스니 너희 유익히되 만약 악을 행한즉 저퍼홀 거시문
 은 제가 칼을 잡음이 공연함이 아니오 하나님의 종이 되어 노를 위하야
 행악하는 자를 침이라 <아펜13:04>

(10)에서 3인칭 지시어로서 ‘더’와 ‘제’가 쓰였는데 현대 한국어에서라면 ‘그’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10)에서 ‘제’가 쓰인 것은 한 문장 내에서 앞에 나온 동일인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어에서 <표1>과 같은 지시어 체계가 지켜지지 못하고, ‘더’와 ‘그’가 혼동되기 시작한 것은 개화기 즈음에 외국어의 번역 과정에서 파생된 오류 현상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시어의 번역

상의 오류가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영어는 인칭 화시에 있어서는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표2>와 같이 화시 체계의 기본이 되는 위치 화시는 2차원 체계이다.

<표2. 영어와 한국어의 화시 체계>

| 영어 위치 | 한국어 위치 | 영어 인칭 | 한국어 인칭 |
|-------|--------|-------------------------|-------------------|
| this | 이 | I | 이 |
| that | 그 | you | 그대 |
| | 저 | she, he (this, that) | 그, 그녀 (이/그/저-) |

한국어의 ‘그’와 ‘저’가 영어에서는 모두 ‘that’으로 번역될 수밖에 없고, 그 번역 방식이 그대로 인칭 화시어에도 반영되어 3인칭 지시어가 ‘그/그녀’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로스 번역본의 1차 작업을 조선인이 주도하고, 영어를 사용하는 선교사들은 내용 중심의 수정 작업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초기 한국어 성경 번역 당시까지는 한국어의 3차원 화시 체계가 지켜질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 한국어에서 1음절 한자어의 2음절어화는 어휘 및 문체의 근대화를 판별하는 준거가 되기도 하는데 대상 한국어 번역 성경에서는 현대어의 2음절어가 아직 1음절어로 쓰이고 있는 예가 확인된다.

- (11) ㄱ. 고로 맞당히 복ㅎ어 오직 노ㅎ미 되지 은코 쫘ㅎ 어던 마암이 될지니라
<로스13:05>
 ㄴ. 고로 맞당이 복ㅎ야 오직 노ㅎ미 되지 안코 쫘ㅎ 어진 므음이 될지니라
<아펜13:05>

(11)의 ‘복ㅎ-’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2음절어의 ‘복종(服從)하-’에 해당한다. ‘1음절 한자어+하-’ 형태로서 현대 국어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 또 다른 예로 ‘행ㅎ-’가 확인된다. 이 시기 ‘행ㅎ-’는 현대 국어에서의 ‘어떤 일을 실제로 해 나가다’라는 뜻 외에 ‘다니다(walk)’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였다. 즉, ‘행ㅎ-’가 다의어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 (12) ㄱ. 느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누리코에 날으러 키리쓰도의 복음을 다 전하고 <로스15:19>
- 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누리코에 나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하고 <아펜15:19>
- ㄷ.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1998_개정 롬15:19>
- (13) ㄱ. 쓰판야에 나아갈 썬 닌 힝홀 즘음에 너희를 보와 만져 너희 무어슬 함씩 죠와하면 느기 지닐 썬에 너희 보늬를 바리노라 <로스15:24>
- ㄴ. 쓰판야에 나아갈 썬 내 힝홀 즘음에 너희를 보아 문져 너희 무어슬 함씩 죠와하면 내 지날 썬에 너희 보냄을 브라노라 <아펜15:24>
- ㄷ. 이는 하나님어 이 갓타물 힝홀는 자를 죽이매 싸물 덩흐신 줄 알되 자기만 악을 힝치 은코 썬 달은 자거지 힝홀물 죠와흐느니라 <로스 01:32>
- ㄹ. 이는 하나님어 이 갓함을 힝홀는 자를 죽이매 싸물 덩흐신 줄 알되 자기만 악을 힝치 안코 썬 다른 자식지 힝홀를 죠와흐느니라 <아펜 01:32>
- ㅁ. 만약 너희가 먹는 바로써 동심으로 근심케 혼 즉 이는 사랑을 힝치 은으미니 너희 먹는 거스로써 키리쓰도 죽음을 위흐는 자를 망케 하지 말고 <로스14:15>
- ㅂ. 만약 너희가 먹는 바로써 동심으로 근심케 혼 즉 이는 사랑을 힝치 아님이니 너희 먹는 거스로써 그리스도 죽음을 위흐는 자를 망케 하지 말고 <아펜14:15>

헬라어 성경과 영어 개역 성경에서도 (12)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명히 ‘실제로 하-’의 의미가 아닌 ‘다니-(walk)’의 의미로 표현되어 있다⁹⁾. 성경의 의고성 때문인지, 현대 한국어 사전의 뜻풀이와는 달리 (12ㄷ)과 같이 현대 성경에서도 ‘행하-’는 여전히 ‘다니-’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9) 로마서에 대한 헬라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전주대학교 소강춘 선생님과 현성식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4.3. 높임법

로스 번역본에는 높임법이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펜셀러 수정본에서는 ‘-씩’로 표현된 높임법이 ‘쥬’, ‘하느님’ 및 몇 성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어에는 높임법이 있고, 이것을 초기 성경에서 확인되는 대두법(擡頭法)이 아닌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 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14) ㄱ. 동싱덜야 너 쥬 예수 키리쓰도와 령의 이이로써 너희를 가유호노니
날노 더부러 힘써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로스15:30>
- ㄴ. 동싱들야 내 쥬 예수 그리스도와 령의 의인이로써 너희를 기유호노니
날노 더부러 힘써 나를 위하여 하느님의 비리 <아펜15:30>
- ㄷ. 더덜이 하나님 참된 거스로 거스슬 박구며 긴너 찬미홀 조화의 주의게
안코 지은 바를 절하여 섬기니 <로스01:25>
- ㄹ. 더들이 하느님 참된 거스로 거스슬 맞고며 길릭 찬미홀 조화의 주의
안코 지은 바를 절하여 섬기니 <아펜01:25>
- ㅁ. 쥬를 힘닙는 너의 사랑호는 암불얏게 문안하고 <로스16:08>
- ㅂ. 쥬를 힘닙는 나의 사랑호는 암불얏게 문안하고 <아펜16:08>
- ㅅ. 키리쓰도를 힘닙어 나로 더부러 함씩 뇌고호 올바노파 너 사랑호는
바 스타코게 문안하고 <로스16:09>
- ㅇ. 그리스도를 힘닙어 나로 더부러 힘씩 로고호 올바노파 내 사랑호는
바 스타코의 문안하고 <아펜16:09>
- ㅈ. 쏘 그 집에 모인 교회에 문안하고 아시아에 처음으로 키리쓰도를 믿는
너의 사랑호는 이비니투게 <로스16:05>
- ㅊ. 쏘 그 집에 모인 교회에 문안하고 아시아에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사랑호는 이비니투의 <아펜16:05>

로스 번역팀에서 가장 먼저 번역해 낸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에서 대두법이 확인되는 것을 보면, 만주에서 번역 작업을 했던 로스 번역팀은 아직 중국식(한문) 문장 표현에 더 익숙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국내에서 실질적 언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성경 번역 작업에 임하였던 아펜셀러, 언더우드 등은 한국어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것을 한국어 성

경 번역문에 표현해내고자 노력하였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5. 결론

1885년 선교를 위해 조선 땅에 들어온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는 1889년 영국 성서공회의 지시에 따라 『예수성교전서』(로스 1887)의 누가복음과 로마서를 수정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 번역 성경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최초의 신약전서인 『예수성교전서』의 ‘로마’ 부분과 그것의 수정본인 『보라달로마인서』(아펜셀러 1890)를 대비하여 당시 각기 다른 지역에서 간행된 한국어 번역 성경의 지역 언어적 차이의 문제를 염두에 두었다. 집필자들 스스로 선교 지역이 달라지면서 그 지역의 대중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음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텍스트의 지역 언어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표기 및 음운 현상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 문헌의 표기 방식은 아직 일원화가 되지 않을 상태로, 여러 표기법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정밀하게 살펴보면, 로스본에서는 연철, 아펜셀러본에서는 분철의 경향성이 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철과 분철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로스본에서는 ‘압폐’와 같은 (부분)중철 표기, 아펜셀러본에서는 ‘압회’와 같은 재음소화 표기가 확인되는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중철 표기는 로스본의 연철 표기의 연장선상에서, 재음소화 표기는 아펜셀러본의 분철 표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과도기적 표기 방법이다. 아펜셀러본과의 대비를 통해 드러난 로스본의 두드러진 음운 현상은 움라우트, 원순모음화, ㅎ탈락 현상이다. 로스 번역본에서 움라우트의 예가 많은 것은 이것이 번역된 지역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휘와 관련하여서는, 로스 번역본과 아펜셀러 수정본에서 다르게 표현된 것, 형태는 같으나 현대 한국어에서와는 다른 의미로 쓰인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방언형 어휘나 한자어의 고유어화로 인한 이질적 표현들은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각각의 연구 과제로서도 충분한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아펜셀러 수정본에서 ‘은혜’로 대치된 로스 번역본의 ‘척’, ‘어떤 일을 실제로 해 나가다’라는 의미와 함께 ‘다니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는 다의어 ‘행ㅎ-’, 아직 2음절화가 되지 않은 ‘복ㅎ-(복중하-), 3인칭 지시어 ‘더’를 살펴보았다.

또, 로스 번역본에서는 높임법과 관련된 표현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나 아펜셀러본에서는 제한적으로 높임법 조사 ‘-씨’가 사용되고 있다. 만주에서 작업된 로스 번역본에서는 중국어(한문)식의 대두법으로 높임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나 국내에 들어와 현지의 대중 언어를 체험하며 한국어 성경 번역 작업을 진행한 아펜셀러 수정본에서는 실질적 언어 요소를 표현해 넣음으로써 한국어의 높임법을 구현해낸 것이다.

끊임없이 번역본, 수정본, 개정본이 이어져 오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 시기별, 지역별, 역자별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한국어 번역 성경 연구는 근대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 이어지는 국어사 연구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경은 고정된 원전의 내용이 있고, 집필자들의 보고서를 통해 번역에 참조된 저본들이 거론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변화 및 변천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문헌 자료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봉희(1987), 『한국 기독교 문서 간행사 연구』, 서울:이화여대 출판부.
- 김영배(1983), Corean Primer의 音韻과 表記, 『東岳語文論集』 제17집.
- 김주병(1983), 『한국 기독교 성서 번역사』, 서울:현대종교사.
- 나채운(1971), 「국역성서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대영·옥성득·이만열 공저(1994), 『대한성서공회사 II:번역·반포와 권서 사업』, 대한성서공회.
- 리진호(1996), 『한국성서 100년사』, 서울:대한기독교서회.
- 민영진(1998), 「로스의 누가복음서의 서지 사항과 번역의 성격」, 『성경원문 연구』 제2호.
- 민영진·전무용·조지윤(2006), 「언더우드의 초기 한국어 성서 번역에 대한 고찰: 『누가복음』(1895)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8, 성서원문 연구소.
- 민현식(2011), 「한국어의 발달과 성서의 영향」, 『한글 성경이 한국 교회와 사회, 국어 문화에 끼친 영향: 한글 성경 완역 및 출간 100주년 기념논문집』.
- 서정욱(1986), 「첫 한글성서의 국어학적 특성연구 : 로쓰역 누가복음(1882/87)의 번역론적 고찰」, 『계명어문학』.
- 서정욱(2010), 「최근 국역본 성경들의 어휘에 대한 번역 언어학적 평가」, 『진리와 학문의 세계』 21, 달구벌기독교학술연구회.
- 송민(1973), 「19世紀 天主教資料의 國語學的 考察」, 『국어국문학』 72·73 합집, 국어국문학회.
- 옥성득·이만열 편역(2006),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2권:영국성서공회 한국지부 초대총무 켄뮤어 서신』, 대한성서공회.
- 유경민(2005), 「지시어 ‘자’의 제한적 기능에 대한 통시적 고찰」, 『한국어의미학』 16, 한국어의미학회.
- 유경민(2011ㄱ), 「國漢 混用文 聖經의 定着 過程 : 『簡易 鮮漢文 新約聖書(1913/1936)를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제13호, 국어사학회.
- 유경민(2011ㄴ), 「『新約全書 국한문』의 非漢字語化 要素 研究」, 『한국어

- 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 유창균(1967), 「국역 성서가 국어의 발달에 미친 영향」, 『동서문화』 창간호, 계명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 이덕주(2004), 「한글 성서 번역사 개관」, 『한국성경대전집』 1, 서울: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 이만열(2001), 「선교사 언더우드의 초기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1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이은선(2007), 초기 한국교회의 성경 번역과 교회 부흥, 『신학지평』 제20집, 서울 내국교회한국교회사연구소.
- 이용호(1979), Ross 목사의 Corean Primer에 대하여, 명지어문학 제11집.
- 이용호(1983), 「최초의 한글 성경 『예수성교 누가복음전』」, 『한국어교육학회지』44, 한국어교육학회.
- 최명옥(1985), 「19世紀 後期 西北方言의 音韻論-平北 義州地域語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7권4호.
- 최명옥(1992), 「19世紀 後期 國語의 研究<母音音韻論>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13, 규장각한국학연구소.
- 최명옥(1994), 「19世紀 後期 國語의 子音音韻論」, 『진단학보』 78.
- 최임식(1984), 「19世紀 後期 西北方言의 母音體系」,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 최태영(1988), 「성경번역이 어문생활에 미친 영향」, 『종교연구』 학회발표자료Ⅱ.
- 최태영(1999), 「基督敎의 神名考: ‘하나님’으로의 정착」, 『국어국문학』 124, 국어국문학회.
- 표성수(1971), 「한국 성서 문체 형성 및 변천과정 소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미경(1998), 「초기 한국 성서와 중국 성서의 서지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히로 다카시(2004), 「李樹廷譯『마가전』의 底本과 翻譯文의 性格」, 『국어사연구』 4, 국어사학회.
- E.A. Nida(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on. Brill. Leiden E.J.

【국문초록】

로스는 만주에서 개신교 초기의 한국어 성경 번역 작업을 추진한 스코틀랜드 소속 선교사이다. 본고는 그가 간행해낸 『예수성경전서』(1887년) 가운데 ‘로마서’와 훗날 그것을 수정한 아펜셀러의 『보라달로마인서』를 대비 연구한다. 본고에서는 로스 번역본의 특징 및 한계와 아펜셀러의 수정 과정을 국어학적으로 살핀다. 당시 수정 작업을 책임졌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로스역본의 수정 작업을 포기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 문제점들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구체화한다. 이 과정은 19세기 말의 평안도 방언과 서울 이남 지역어 표현들을 대조하는 국어학적 연구로서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주제어 : 한국어 번역 성경, 로스, 로스역본, 아펜셀러, 로마서, 평안도 방언, 음운 현상, 어휘

【Abstracts】

A comparative study of Yesuseonggyojeonseo-Romans(1887) and Boradalromainseo(1890)

Yu, Kyung-Min

John Ross, who promoted the Bible translation into Korean in Manchuria in early Protestant, was a Scotland missionary. This is a contrast study between 'Romans' among his publication Yesuseonggyojeonseo-Romans (1887) and Boradalromainseo(1890), the Appenzeller's Revision afterward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Ross's translation and the process of Appenzeller's correction by Korean linguistics. And this study makes concrete, why Underwood and Appenzeller, who were responsible for the corrections at that time, gave up to correct Ross's Version and how those problems were solved. This process has significance as a study of Korean linguistics, comparing the realistic expression of Pyeong-an dialect with the language expression of south area of Seoul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Key words : Korean Bible, John Ross, Ross Version, Henry Gerhard Appenzeller, Romans, Pyeong-an dialect, phonological processes, lexicon

이 논문은 2012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3년 2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